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4:1-2)**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그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유브라테 저편에 있는 집안 가족을 떠나 내가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여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기다리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에게 바칠 의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만일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었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4:3)**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4:4)**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시고, 결코 빚을 갚을 일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빚질 일이 없으십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에 의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한 의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자가 되시는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시고, 나의 행한 특별한 노력과 행위와 나의 희생과 하나님을 위한 나의 결단에 대해서 상을 주셔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4:5)**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도 의롭게 되는 문이 열려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영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실패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내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의 신실한 헌신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척 목사님, 이 주간 당신은 고속도로에서 앞을 갑자기 가로지르는 위험한 운전자에게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기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이 주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주어되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여하십니다. 더욱이 내가 가장 큰 실패를 한 직후에도, 내가 예기치 않았던 큰 복을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내 자신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올 수 없음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이라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 많은 착한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한 보따리 지고 와서 주는 그런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만일 행실이 좋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선물대신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행실을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 반복해서 그것들을 조사하여 누가 착한 아이며, 누가 못된 아이인지를 조사합니다. 착한 아이는 선물을 받게 되고, 못된 아이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지런하고 신실한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내가, 내가 행한 좋은 일에 대해서 상을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은 그의 은혜에 기초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에 기초한 복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 주심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한 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모두 제거하셨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드립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실패와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메달려 있고, 감히 내가 스스로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4:6)**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4:7)**

"복"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오,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나" 란 뜻입니다. "허물을 용서함 받고, 그들의 죄악이 가리움을 받는 자들이 복된 자"란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다윗의 말한 경위를 알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아주 무겁게 눌러서 그의 영적 상태가 마치 여름 가뭄같이 메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밤낮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어 그의 뼈가 썩는 듯하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욱 담대히 말하기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4:8).**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지은 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치 않으신다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성경에 이러한 선언이 없으면, 내가 감히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선언할 따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치 않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혹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4:9-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록을 보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인정치 않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복 주심이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며, 육신의 할례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이 그가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4:11)**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시며,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조상도 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4:12-13)**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400년경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할례의 의식을 통하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오기 전에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약속이 족속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4: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된다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4:14-15)**

지금 율법이 있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4:16)**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 자신에게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신실함이나, 그 무엇이든지 믿음 이외에 달려 있다면, 매일매일 의롭게 되는 일이 불확실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내일 실수하여 구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나의 행위에 따라 얻어진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4:16-17)**

단지 유대인 뿐만 아니라,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는 이시니라(4:17)**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흥미 있는 국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임신하기도 전에, 말씀 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치 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은,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간에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시간에 존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는 존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몸을 떠날 때에, 나는 즉시 모든 것이 현재인 영원이란 시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 3:15을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의 관념이 없는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있을 것이고, 내일이 오늘이 되고, 어제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과사디나에서 로즈 퍼레이드(장미로 장식한 가장행렬)를 합니다. 이 날은 신년의 첫 날입니다. 이 장미로 아름답게 장식한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콜로라도 대로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는 아름다운 장식이 롱비치라는 이름을 가진 장식의 장미꽃 차였습니다. 그 앞에는 나팔행렬이 앞서서 나팔을 불고,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차가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꽃차는 지나가고, 다른 시에라 마드레라는 꽃차가 이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꽃차를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꽃차는 몇 분전에 뒷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본 사람들이 이미 찬사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시에라 마드레는 뒷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고, 또 네 불룩을 지난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라 마드레 꽃차에 대한 장식을 보고, 감탄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다른 꽃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계속 지나가는 아름답게 장식한 꽃차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시에라 마드레 꽃차가 사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꽃차는 행렬을 따라 콜로라도 대로로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 다가 오는 장식차를 보고 있으며, 이 새로 지나가는 꽃차는 사분 후에, 시에라 마드레가 있었던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계속 행진하는데, 이번은 롱비치 꽃차가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정된 시간 범위에서 한 곳에 서서 모든 장식한 아름다운 꽃차를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나가는 행렬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내가 Goodyear풍선을 타고, 과사디나 상공에서 밑을 내다본다면,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렬을 한 눈에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나갔던 롱비치 꽃차, 그리고 시에라 마드레 끝을 지나가는 멕시코 장식 꽃차 행렬도 동시에 모두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모든 행렬을 즉시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로의 한 모퉁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지나가는 것만 보아야 하는 시간의 흐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롱비치 꽃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간에 그 차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셨으므로, 그 꽃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밖에 있는 영원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시간 밖에 계시므로, 그것을 미리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단지 미리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한정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시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분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흥미로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취하여 내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취하여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돌아올 때에는, 아들과 함께 그의 사환에게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소년이 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 오리라” 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잠깐만 당신이 그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사환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직 어떤 아들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반드시 나와 함께 돌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가 나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시려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삼일간 여행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은 성경 전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놓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삭이 나와 함께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이들을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를 갖기 전에 하신 말씀이며, 그는 아이를 가질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의 아들 이삭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4:18)**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4:18-19)**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째 열쇠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어려움을 생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첫번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어렵고 불가능이라고 구분해 버리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백세나 되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했습니다.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으로 생각치 않았했습니다. 아마 이 때는 그의 정욕이 쇠하였을 것입니다.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사라는 이 때에 폐경기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이나 어려움을 생각치 않았했습니다.

둘째 열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른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의심치 않았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4:20),**

‘주님,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라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라가 그의 평생에 아들을 원했는데,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4:21)**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4:22)**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 그가 나의 말을 믿고 의지하였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4:24-25).**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롭다 함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뜻을 말합니까? 나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5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비극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다. 자기들의 정욕과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꾀변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5장에 들러보면,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말인가? 만일 여기서 오늘로 말씀공부를 끝내 버리면, 당신은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에 그가 기쁨으로 죽음을 택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고통을 그가 대신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한 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나에게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원치 아니하시는 일은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의 걸음을 걷기 원하고, 나는 그가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어떤 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법에 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